

스웨덴 스타트업의 생태계와 관련 노동 현안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 머리말

스웨덴은 스타트업의 천국이자 허브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 내 스타트업 친화적인 도시 순위를 보여주는 2016년 유럽 디지털 시티 인덱스(European Digital City Index 2016)에서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이 2위를 기록했으며 스타트업 기업의 중추를 이루는 기술, 혁신 분야를 평가하는 글로벌 혁신 인덱스(Global Innovation Index 2016)에서도 스웨덴이 2위를 차지하여 스타트업 허브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스웨덴은 에릭슨, 볼보, H&M, 이케아, 일렉트로룩스 등 대기업들이 중심이 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재벌이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한국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경제구조하에서 어떻게 스웨덴이 스타트업 허브로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도 의미하는 바가 많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은 스웨덴의 스타트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는 스웨덴 정부의 정책과 스타트업과 관련한 노동 현안에 대해 다룬다.

■ 스웨덴 내 스타트업 현황

Startup Hubs Europe(2016)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에는 현재 8,00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있으며 이들 기업의 고용 규모는 약 52,000명이다. 한 국가의 스타트업 기업의 활성

화 정도는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16)가 조사한 초기단계 기업 활동지수(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지수에 따르면 스웨덴은 7.2%로 영국 6.9%, 독일 5.7%, 핀란드 6.6%보다 높아 유럽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웨덴은 스타트업 수의 증가뿐 아니라 스타트업의 규모 확대에 있어서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앞서 나가고 있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스타트업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은 세계 최대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Spotify,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 Skype, 게임 캔디크러쉬사를 만든 King, 게임 마인크래프트로 유명한 Mojang, Klarna 등 7개로 유럽 내 다른 대도시인 런던(4개), 베를린(3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46, 2015).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데 이는 주로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 상장(IPO)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스타트업의 투자금 회수 전략을 흔히 '엑시트(Exit)'이라는 용어로 부르곤 한다. 창업자와 벤처 캐피탈(VC) 투자자는 이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 중 상당수가 다시 창업 혹은

<표 1> 전 세계 스타트업 M&A 통계(인구 100만 명 기준)

	국가	M&A 건수	인구	인구 100만 명당 M&A 수
1	룩셈부르크	8	536,427	14.91
2	스웨덴	53	9,595,619	5.52
3	캐나다	189	35,309,555	5.35
4	이스라엘	41	7,939,745	5.16
5	스위스	35	7,788,196	4.49
6	핀란드	22	5,434,241	4.05
7	노르웨이	20	5,022,555	3.98
8	덴마크	21	5,628,958	3.73
9	영국	226	63,556,184	3.56
10	아일랜드	15	4,682,042	3.2
11	싱가포르	17	5,335,859	3.19
12	미국	984	322,422,965	3.05
13	뉴질랜드	11	4,554,858	2.42
14	홍콩	17	7,352,945	2.31
15	호주	43	23,502,754	1.83

자료: Mattermark Data(2016).

투자로 순환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하여 Mattermark Data(2016)가 제공한 전 세계 스타트업 M&A 통계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스타트업 M&A는 53건으로 전체 8위로 나타났으며 인구 100만 명 기준으로 했을 시 룩셈부르크(14.91건)에 이어 5.52건으로 2위로 나타났다. 이 통계를 통해 스웨덴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연이은 창업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단순히 스타트업 기업의 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운영과 협력을 돕는 허브 역시 증가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혁신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존재했던 기존의 SUP46와 Epicenter는 그 규모가 더욱 확장되었으며 스웨덴의 대표적 스타트업 기업인 Klarna는 2016년 Norrskan Social Innovation Hub를 만들어 자신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스웨덴 정부의 스타트업 관련 정책

이와 같이 활성화된 스웨덴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에제키엘 헤르난데즈(Exequiel Hernandez) 와튼 경영대(Wharton Business School) 교수는 스웨덴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 사회적, 교육적, 기업 차원의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인프라 투자, 열린 기업 문화, 스웨덴 유명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공에 힘입은 추가 투자유치 등이 다양한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분석했다(Wharton, 2015).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 European Digital City Index(2016)는 유럽 내 많은 도시들이 갖추지 못한 광대역 연결망(Broadband) 시스템을 스톡홀름에서는 일찍부터 갖추고 있어 스타트업이 탄생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광대역 통신망 구축 외에도 1994년 PC 소비세를 면제하여 가정 및 기업 내 PC 보급률을 높은 점 역시 현재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카트릭 호사나가르(Katrik Hosaganar) 와튼 경영대 교수와 Klarna의 창업자 세바스찬 시에미앗코스키(Sebastian Siemiatkowski)는 주장했다. 또한 스웨덴 내 IT 전문가의 비율이 OECD 내 어느 국가보다도 높다는 점을 근거

로 스톡홀름이 IT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데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분석했다(Wharton, 2015). 한편 Spotify의 최대 주주인 벤처캐피탈 기업 Northzone의 마르타 회그렌(Marta Sjögren)은 스웨덴이 혁신을 위한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며 단순히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및 사회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Telegraph, 2015).

이 밖에도 스웨덴 정부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스웨덴 혁신청(Vinnova)을 두어 다양한 창업,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혁신청은 2017년 상반기에만 117개의 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과 혁신 기술 개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Vinnväxt - Regional Growth through Dynamic Innovation Systems'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된 혁신기업들의 협업과 이를 통한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 등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의 산업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과 지역 대학과의 기술 개발 협력을 통해 상생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현재 스웨덴 정부는 2016~19년 동안 총 7,800만 크로나를 투입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다양한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정책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스웨덴 내 최우수 창업기업 보육센터 중 하나인 읍살라 혁신센터(Uppsala Innovation Centre)는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단계부터 창업기업의 설립 초기 과정, 제품 생산과정 등 다섯 가지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성, 상업화 타당성, 국제화 가능성, 성장 가능성,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읍살라 혁신센터는 설립 당시에는 전통적인 인큐베이터였으나, 스타트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즈니스 컨설팅'과 '노하우 전수'라고 판단, 2004년 비즈니스 코치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전환하였고 현재는 전·현직 기업인들로 구성된 70여 명의 비즈니스 코치를 두어 스타트업의 제품개발 방향, 회사조직 구성 및 운영, 금융네트워크 소개, 제품홍보 및 국내외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현재 읍살라 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기업의 90% 이상이 시장에서 생존하였고 창업기업이 세금과 직원 급여 등으로 1년간 사회에 환원하는 투자회수지수(ROI: return on investment)는 투자금액의 13배로 알려져 있다(주스웨덴 대사관, 2015; 코트라 스톡홀름 무

역관, 2016).

무상으로 제공되는 대학교육 역시 스웨덴 내 스타트업 기업 확대 및 창업가 정신 고취에 일조하고 있다. 스톡홀름 부근의 다섯 대학이 모여 만든 스톡홀름 창업 대학(Stockholm School of Entrepreneurship)은 창업가 정신뿐 아니라 창업에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수업과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 내에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창업에 대해 고민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인 ‘Campus’를 두어 실제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왕립공과대학(KTH)과 연계해 2002년 만들어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STING과 스톡홀름 경제대학(Stockholm School of Economics)이 만든 Business Lab은 학생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 스타트업과 관련한 노동 현안

스웨덴 스타트업 부문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은 인력수급, 특히 해외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은 주거비용, 세금 등은 해외 인재들이 스웨덴, 특히 스톡홀름으로 이주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은 현재 주택 부족과 그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정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Spotify의 창업자 다니엘 에크(Daniel Ek)와 마틴 로렌존(Martin Lorentzon)은 지난해 4월 스톡홀름의 주택난이 기업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없을 시 그들의 본사를 다른 국가로 옮길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스톡홀름 내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 역시 주택난이 인재영입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2016년 5월 스웨덴 의회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온건당(Moderate Party)의 대변인 엘리자베스 스반테손(Elizabeth Svantesson)은 이 시위 현장에 참여하여 스톡홀름 지역의 건축 규제를 변경해서 아파트 및 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Spotify 창업자들은 초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능력 있는 사람을 영입할 때 높은 임금 대신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는데 스웨덴 정부에서 스톡옵션에 높은 세율(67%)을 적용해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기존 법의 개정안을 2016년 12월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스톡옵션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며 고용주는 스톡옵션에 대해 급여세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세제 혜택은 50인 미만, 순매출 8,000만 크로나 미만 기업에 적용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스웨덴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협회(Svenska riskkapitalföreningen)의 의장 엘리자베스 링퀴비스트(Elisabeth Ringvist)는 이 세제 혜택이 250인 기업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웨덴 정부는 지금 개정안보다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늘어날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개선안의 대상은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스타트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추가 수정이 없을 것임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The Local, 2016).

중앙당(Center Party)의 대변인 에밀 칼스트룀(Emil Kallström)은 스웨덴이 스타트업 허브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Dagens Nyheter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특히 스타트업과 혁신 관련 정책 실행에 있어 현 정부와 기관들이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빠르고 유연하고 일관성 있는 정부의 대응 및 정책 실행을 요구했다. 또한 기업의 혁신과 기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통계자료를 관련 기관에서 공개해야 함을 촉구했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디지털화, 자동화가 진행 중인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창업 관련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원 중앙당의 주장을 유지했다. 특히 스타트업들의 스웨덴 경제 정착을 위해 앞서 언급한 스톡옵션 세제 개편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Dagens Nyheter, 2017).

이와 같이 스웨덴 스타트업들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문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스웨덴 기업에 비해 혁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와튼경영대의 보고서(2015)는 스웨덴의 일-생활 균형 지향적인 근로문화를 스웨덴 스타트업 성공의 비결로 꼽았는데 여성이 근로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으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환경이 스웨덴 스타트업을 더욱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스웨덴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끌었던 일 6시간 근로 실험의 경우, 지자체의 병원이거나 특수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스웨덴 기업에 비교했을 때 6시간 근로 실험과 같이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스타트업들은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스웨덴 노동시장 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이민자 및 난민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존 스웨덴 기업에 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5월 스톡홀름 시와 스톡홀름 내 2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술을 갖춘 이민자와 스타트업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함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스타트업에 이민자 및 난민 기술자를 소개시키고 이들의 고용을 돕는 스타트업인 Sync Accelerator도 생겨나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웨덴 스타트업 생태계뿐 아니라 다소 경직된 스웨덴 노동시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

■ 맺음말

이 글에서는 스웨덴의 스타트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 및 스타트업을 둘러싼 노동 현안을 살펴보았다. 유럽 내 스타트업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는 스웨덴은 스타트업의 초기 진입뿐 아니라 육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책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몇몇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청년 실업률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창업 및 스타트업 활성화를 내건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스타트업에서 거두는 고용창출 효과는 큰 매출을 기록하는 유니콘 스타트업을 육성해내지 못하는 이상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alvino, Criscuolo and Menon, 2015). 많은 대선 주자들이 내건 스타트업 활성화 공약은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이나 장년층을 창업시장으로 이동시켜 단기적인 실업률 하락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성장시키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의 지원뿐 아니라 스타트업의 육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스웨덴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초기 창업 활성화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국의 스타트업 관련 정책 입안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KLI**

참고문헌

- 주스웨덴대사관(2015), “읍살라혁신센터(UIC) 창업지원정책”, Retrieved March, 29, 2017 from 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554&seqno=1164557&c=TITLE&t=&pagenum=6&tableName=TYPE_LEGATION&pc=&dc=a%EF%BF%BD%C6%A1%EF%BF%BD%EF%BF%BD%EF%BF%BD??a%EF%BF%BD?null&wc=₩&lu=&vu=&iu=&du=
- 코트라 스웨덴(2016), “스웨덴, 스타트업 육성정책 엿보기”, Retrieved March, 29, 2017 from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51690>
- Calvino, F., C. Criscuolo and C. Menon(2015), “Cross-country evidence on start-up dynamic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2015/06, OECD Publishing, Paris.
- Dagens Nyheter(2017), “Så kan klimatet förbättras för Sveriges startupföretag”, Retrieved March, 29, 2017 from <http://www.dn.se/debatt/sa-kan-klimatet-forbatttras-for-sveriges-startupforetag/>
- European Digital City Index(2016), “European Digital City Index”, Retrieved March, 28, 2017 from <https://digitalcityindex.eu/>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16),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5/2016 Global Report”, Retrieved March, 29, 2017 from <http://www.gemconsortium.org/report/49480>
- Global Innovation Index(2016),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16: Winning with Global Innovation”, Retrieved March, 29, 2017 from <https://www.globalinnovationindex.org/gii-2016-report#>
- Mattermark Data(2016), “The Global Network Of Startup M&A Deal Flow Is More Concentrated Than You’d Think”, Retrieved March, 28, 2017 from <https://mattermark.com/global-startup-acquisitions-network/>

- Startup Hubs Europe(2016), “Mapping Europe’s startup ecosystem”, Retrieved March, 29, 2017 from <http://www.startuphubs.eu/>
- SUP46(2015), “Annual Swedish Startup Infographic”, Retrieved March, 27, 2017 from http://sup46.com/wp-content/uploads/2016/03/SUP46_Annual_Swedish_Startup_Infographic_2015.pdf
- Telegraph(2015), “How Sweden became the startup capital of Europe”, Retrieved March, 27, 2017 from <http://www.telegraph.co.uk/finance/newsbysector/mediatechnologyandtelecoms/11689464/How-Sweden-became-the-startup-capital-of-Europe.html>
- The Local(2016), “Swedish government proposes tax changes for startups”, Retrieved March, 28, 2017 from <https://www.thelocal.se/20161219/swedish-government-proposes-tax-changes-for-startups>
- Wharton(2015), “How Stockholm Became a ‘Unicorn Factory’”, Retrieved March, 27, 2017 from <http://knowledge.wharton.upenn.edu/article/how-stockholm-became-a-unicorn-factory/>